

學界 연구성과의 '출판' 러시

'비매품' 논문집 벗어나 일반독자 겨냥

인문사회과학분야의 각종 학회 및 연구회의 연구결과가 잇따라 단행본으로 묶여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학회단행본'은 작년말과 금년초의 3개월여에 걸쳐 집중적으로 간행되고 있는데, 전문연구성과의 대중적 보급이라는 점에서 일반독자들에게까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종래의 학회 연구성과가 대부분 투박한 모습의 비매품 논문집으로 발간돼 해당분야의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배포됐던 관례에 비추어, 이같은 일반독자용 단행본으로의 전환은 학문이 모든 사람의 공유물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서점판매용 단행본으로의 출간이라는 유통형식상의 변화는 상아탑의 폐쇄공간에서 이루어지던 갑론을박이 보다 공개된 차원에서 시시비비로 지양됨으로써, 역으로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단행본으로 묶어내는 일에 활발한 학회 및 연구회의 대부분이 학문의 현실에 대한 실천적 적용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출판을 통한 연구성과 공개

현재, 단행본의 형태로 묶어져 서점가에 나와 있는 학회연구논문집은 대략 30권으로,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사회사연구회와 한국정치외교사학회에서 펴낸 책들이다.

1980년 실학의 實事求是 전통을 학문적으로 계승하며 '새로운 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을 지향한다'는 취지 아래 결성된 한국사회사연구회에서 나온 책들은 모두 9권. 1986년말 「한국의 근대국가형성과 민족문제」 「한국근대농촌사회와 일본제국주의」 「한국의 사회신분과 사회계층」 「한국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해방후 한국의 사회변동」 등 5권을, 그리고 지난해말에 다시 「서구사회사이론의 조류」 「한국의 종교와 사회변동」 「한국사회의 신분계급과 사회변동」 「일제하의 사회운동」 등 4권을 문학과지성사에서 발간했다. 각 논문집의 제목에서 보듯 사회사 및 사회사상사, 그리고 역사사회학 분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데, 앞으로도 매년 그해에 이루어진 회원들의 연구성과를 모아 주제별 논문집을 간행할 예정이다. 慎鍾廈(서울대)교수를 회장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의 젊은 연구자에서 소장 및 중견학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1984년에 창립된 한국정치외교사학회에서는 평민사를 통해 모두 4권의 단행본형 연구논총을 내고 있다. 학회 단위의 연구발표회 및 학술회의 등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정리해 「甲申政變研究」와 「韓國獨立運動과 列強關係」를 1985년에, 「韓佛外交史」 및 「朝鮮朝政治思想研究」를 1987년에 펴냈다. 한국정치와 그에 영향을 끼친 대외관계와 관련된 분야의 역사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韓興壽(연세대)교수가 회장이다.

한편,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출신의 젊은 연구자 18명이 모인 근대사연구회가 2년여 동안의 공동작업 끝에 지난해 말 펴낸 「韓國中世社會 解體期의 諸問題」(한울)도 주목을 끄는 책. 조선시대의 정치, 사상, 경제, 사회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총점검함으로써, 향후 우리 역사학의 연구과제와 그 방향성이 제시된 책으로 평가된다. 근대사연구회는 이 책의 발간을 끝으로 해체됐다.

또, 1986년에 결성된 한국도교사상연구회(회장 車柱環)에서 전후 7차에 걸친 발표회와 2차의 세미나 결과를 정리한 논문 16편을 함께 묶어 펴낸 「道敎와 韓國思想」(범양사 출판부)도 이 방면의 의의있는 연구성과로 평가된다. 그밖에, 서울대 사회학과와 재학생 서클로 알려진 사회발전연구회가 올초에 펴낸 「농민층분해와 농민운동」(미래사)은 학생들 수준에서의 '학습'의 결과를 책으로 엮어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빈농주체의 대중노선의 관철을 위하여'라는 다소 '운동권적인' 시각 아래 오늘의 농촌문제를 독점자본과의 관련양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공동작업에 따른 필필자의 익명성이 특징이다.

'잡지형 단행본' 성격 짙은 것도

한편, 위의 책들이 일정한 주제에 관련된 논문들을 한데 묶음으로써 그 자체가 낱알의 단행본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반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회의 「한국사회학연구」(한울), 한국산업사회연구회의 「산업사회연구」(한울), 여성사연구회의 「여성」(창작과비평사) 등은 보다 잡지적인 성격이 짙다. 그 제호부터가 그렇고, 다루어진 내용 또한 일정한 주제를 향한 집중력을 보인다기보다는 '잡지적'으로 확산돼 있다. 그리고, 연속성의 특징도 아울러 갖는다.

'사회학 및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 또는 등



각종 학회 및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단행본으로 묶은 책들이 집중적으로 간행되고 있다.

이들 '학회단행본'은

현재 대략 30권에 이르는데,

학계의 전문적 연구성과가 일반독자에게 보급되는 계기가 된다는 데 그 일차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연구작업의 공동성 회복을

비롯해, 학문의 현실참여를 유도하고,

출판사와 학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모범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서울대의 역대 사회학과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회의 「한국사회학연구」는 지난 1월로 제9집째가 나왔다. 1977년 제1집이 간행된 이래 주로 한국의 사회구조 및 그 변동을 천착한 논문들을 실어왔는데, 9집에는 한국 대기업의 자본축적, 일제시대의 소작제도 등 한국자본주의 형성에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1984년 창립 이래 한국자본주의의 성격문제 및 국가, 계급 등에 관한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산업사회연구회의 「산업사회연구」는 지금까지 2권이 나와 있다. 1986년 3월에 '자본주의론'의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해명한 논문들을 모은 1집이, 그리고 지난해 말에 '해방전후사 연구의 쟁점', '사회구성체이론' 등을 특집으로 꾸민 2집이 간행됐다. 한국산업사회연구회는 따로 내부소식지인 「산업사회연구회 소식」을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기도 한데, 현 회장은 金普均(서울대)교수. 이념적 폐쇄성에 따른 사회과학의 '반쪽'이론에의 보수적 안주를 탈피, 이론적 추구와 사실의 추구를 한데 수렴한다는 지향을 보이고 있다.

잡지형 단행본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여성사연구회의 「여성」은 올 1월 제2집이 간행됐다. '올바른 여성운동을 위한 과학적 이론과 실천의 모색현장'을 표방하고 있는데, 2집에서는 해외 여성운동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1집은 '허위의식과 여성의 현실'을 특집으로 1985년 12월에 간행된 바 있다.

학계와 출판계의 긴밀한 연계 조성

학회 및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위와같이 단행본 혹은 잡지형 단행본으로 묶어내는 작업에 대해 학계와 출판계에선 크게 3가지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한다.

그 첫째는 연구작업의 공동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그를 적극적으로 촉발하는 데 '학회단행본'이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김진균교수의 말을 따르면, 공동연구는 '지적 생산의 고립분산성을 극복'하게 하여 개별연구의 단순한 총합에 비해 훨씬 큰 성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둘째는, 현실에 개입하는 학문의 풍토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출판이라는, 일반대중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활용됨으로써 이른바 '학문의 침묵'이 지양되고, 오늘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의 연원이 규명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 '학회단행본'의 활발한 간행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產學협동, 곧 출판사와 학계의 긴밀한 연계를 모범적인 선례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한국사회사연구회와 문학과지성사, 한국정치외교사학회와 평민사, 한국산업사회연구회와 한울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즉, 먼저 출판사쪽에서 보자면, 자체의 기획역량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학계의 주요 활동들을 유관 연구단체와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또, 학계쪽에서는 출판사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자신들의 연구성과를 대중적으로 전파·보급시킨다는 점에서, '학회단행본' 출판에서 보는 것 같은 출판사와 학계의 긴밀한 연계는 앞으로 더욱 공고해지리라는 전망이다.

—강철주 기자